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2022. 5. 4 (수)

02. 6454-4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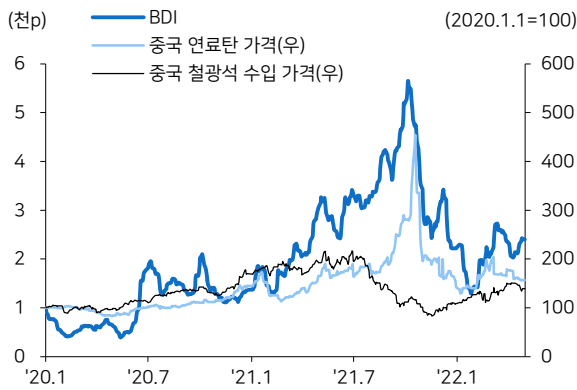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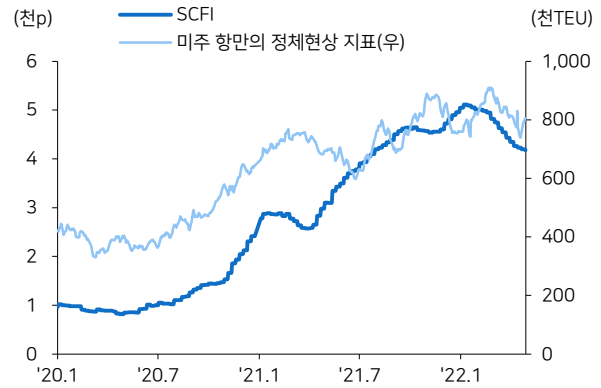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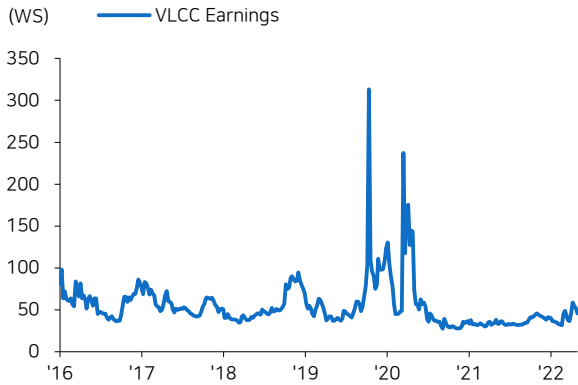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412p(+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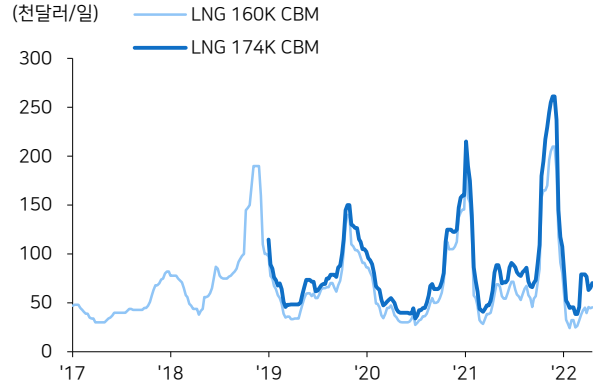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77.3(-18.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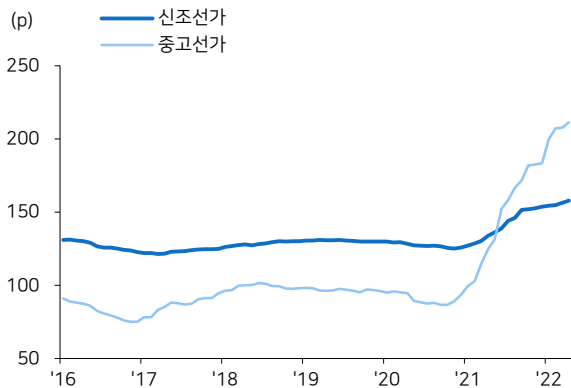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5.8p(-6.1p WoW)



LNG Spot 운임 45.8p(+0.3p WoW)
76.8p(+6.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7.8p(-0.2p WoW)
211.2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60.3p(-0.1p DoD)
103.3p(+1.6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푸틴 '보복 제재' 서명... "러 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국이 정한 제재 대상에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됨. 향후 10일 내로 구체적 제재 대상 명단이 확정될 계획임. 한편, 지난 3월 7일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48개국이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바 있음. (국민일보)

러 원유 수입금지 준비 마친 EU...독일 "값싼 에너지 시대 끝났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정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대러시아 6차 제재 패키지를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3일 에너지장관회의에서 6차 대러제재방안이 제안되고, 회원국은 주말까지 찬반을 결정할 전망이다.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독일이 강경론으로 돌아서며 제재에 속도가 붙게 되었지만, 러시아 석유 금수 제재는 빈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됨. (조선Biz)

PC시장 강한 반등

정유업계의 경제성 향상으로 정유운반선(PC)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2년전에는 일시적인 해상 저장량 증가 덕에 운임이 상승했지만, 현재 상황은 무역패턴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항해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유럽이 러시아산 대신 다른 곳에서 정유를 수입하기 때문임.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으로 Clarkson's는 PC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함. (선박뉴스)

해상운임 하락세

중국 상하이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하락세라고 보도됨. 해상운임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4월부터 상하이항이 봉쇄되며 물동량이 감소했고, 미국 내 항만적체현상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설명함.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주요 선사들이 러시아 대신 다른 국가들에 기항하며 일부 항로에 선박 공급이 증가한 것도 운임하락에 영향을 미침. 한편, 전통적으로 5월부터 물동량이 증가하는 해운 성수기에 접어들어 운임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FuelEU Maritime rules could slow newbuilding orders, analyst warns

유럽연합의 선박연료 규제(FuelEU Maritime)가 단기적인 벌크선, 탱커 발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됨. 4월 28일 논의된 초안은 2050년까지 전통연료 사용중단을 목표로 함. Jefferies는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선주들이 선박교체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Two in race for liquefaction trains prize at Qatar's giant North field expansion

Qatargas의 수십억 달러 규모 North field expansion 프로젝트의 액화트레인 설비에 두 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됨. Chiyoda-Technip과 Saipem-현대중공업-CTCI가 경쟁하고 있음. Qatargas는 2022년내 액화 트레인 EPC 계약을 발표할 것으로 언급함. 한편, NFE 프로젝트 2단계는 2027년까지 LNG생산량을 연간 1.26억톤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